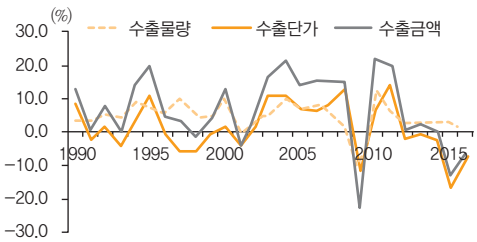
# 2016년 수출입 평가와 2017년 전망 -석유화학 산업을 중심으로-[1)]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 **문 병 기**
(bkmun@kita.net)

##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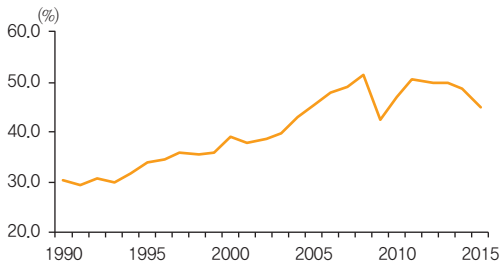
2012년 이후 세계무역은 둔화 내지 정체 상태에 진입했다. 2012년 이후 실질 세계수출 증가율은 3%대 이하에 머무르고 있다. 세계무역량이 세계경제 성장률보다 빠르게 둔화되면서 세계무역량 증가율과 세계 GDP 성장률의 관계는 1985-2007년 2:1에서 2012-2016년에는 1:1 이하로 떨어졌다. 그 결과 세계GDP 대비 세계무역액의 비중이 2011년 50.6%에서 2015년 45.2%로 하락했다.

[그림 1] 세계수출 물량/단가/금액 증가율




자료: WTO

[그림 2] 세계GDP 대비 세계무역액 비중 추이




자료: IMF

세계무역 금액도 2012년부터 증가세가 크게 축소되었고, 2015~2016년에는 감소했다. 2015년부터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수출단가가 급락하면서 세계 수출액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수출물량 증가세도 지난해 3%에서 금년 상반기에는 1% 미만으로 둔화되었다.

우리 수출도 2015년 8% 감소한데 이어 2016년

1) 본고는 문병기 외, "2016년 수출입 평가 및 2017년 전망," 「Trade Focus」, 43호, 국제무역연구원(2016.11월)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 · 보완한 것임.

〈표 1〉 세계무역 규모 및 증가율

(단위: 조 달러, 전년동기대비, %)

| 구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1~9 |
|---|---|---|---|---|---|---|
| 세계무역액 | 36.8 | 37.2 | 38.0 | 38.1 | 33.2 | 23.5 |
| 증가율 | 19.6 | 1.0 | 2.0 | 0.4 | -12.7 | -4.8 |

자료: WTO

5.9% 감소하여 수출부진이 지속됐다. 세계경제 저성장,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 대중국 수출부진 심화,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우리나라는 수출에서뿐만이 아니라 수입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겪었다.

한편, 올해만을 놓고 보면 상반기에는 수출이 10.2% 감소하였으나 일평균 수출이 1월을 저점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8월(2.6%)과 11월(2.3%), 12월(6.3%)에는 플러스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브렉시트, 한진해운사태, 신규 출시 스마트폰 생산 중단 등이 겹치면서 연간 수출물량은 1.1% 증가에 그쳤고 유가하락과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경쟁심화로 인해 수출단가가 6.4% 감소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수출부진을 면치 못했다. 수입은 소비재가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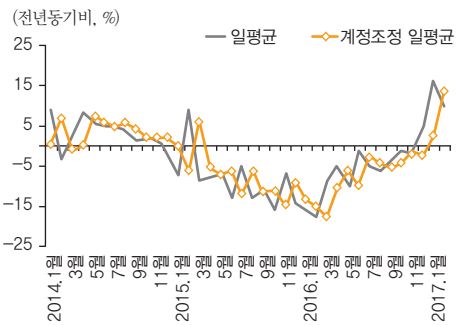
〈표 2〉 2016년 수출입 실적

(단위: 억 달러, 전년동기비, %)

| 구분 | 2014 | 2015 | 2016 |
|---|---|---|---|
| 수출(증가율) | 5,727 (2.3) | 5,268 (-8.0) | 4,954 (-5.9) |
| 수입(증가율) | 5,255 (1.9) | 4,365(-16.9) | 4,062 (-6.9) |
| 무역수지 | 472 | 903 | 892 |
| 무역규모 | 10,982 | 9,633 | 9,01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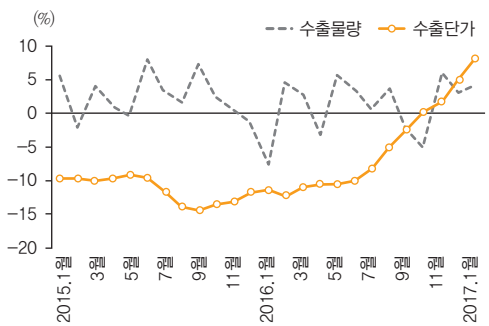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3] 일평균 수출증가율 추이




자료: 국제무역연구원

[그림 4] 수출 단가 및 물량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년 대비 4.3% 증가한 반면, 1차산품(-8.6%)과 자본재(-13.9%)는 감소했다. 2016년 연간 수출은 전년 대비 5.6% 감소한 4,954억 달러, 수입은 6.9% 감소한 4,062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무역흑자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892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무역규모는 9,016억 달러에 그쳤다.

품목별로는 2016년 중 컴퓨터(8.6%)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자동차(-11.3%), 무선통신기기(-9.0%), 선박(-14.5%), 석유제품(-17.5%), 가전(-11.6%), 평판디스플레이(-15.5%) 등은 부진했다. 컴퓨터는 보조기억장치(SSD)에 대한 수요 증가와 신제품 출시(10월)에 힘입어 하반기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반도체는 공급과잉으로 인한 단가하락으로 상반기 7.4% 감소했으나, 국내 스마트폰의 베트남 생산 본격화에 따른 부분품 수출 증가와 아이폰7 등 신규모델 출시에 따른 메모리 가격 안정화로 하반기 수출은 5.1% 증가로 반전하면서 선전했다. 반면 자동차는 해외 현지생산 · 판매 증가와 태풍으로 인한 공장 침수, 파업 등의 일시적 요인으로 수출이 크게 감소했다. 무선통신기기는 스마트폰 시장 성장둔화 및 글로벌 경쟁심화에 따라 수출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신규 출시 스마트폰 판매 중지로 인해 완제품 수출이 감소하고 부품 현지 조달 확대에 따라 부분품 수출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석유화학, 철강제품, 석유제품, 섬유류 등은 2015년 대비 감소폭이 축소된 반면, 일반기계, 자동차, 선박, 액정디바이스 등은 전년 대비 감소폭이 확대됐다. 특히 석유화학 수출은 2016년 하반기로 갈수록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대로 회복함에 따라 상반기 11.0% 감소에서 하반기

〈표 3〉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단위: 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

| 품목명 | 2015 | | 2016 | |
|---|---|---|---|---|
|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반도체 | 629 | 0.4 | 622 | -1.1 |
| 일반기계 | 468 | -3.4 | 437 | -2.8 |
| 자동차 | 458 | -6.4 | 406 | -11.3 |
| 석유화학 | 378 | -21.6 | 362 | -4.3 |
| 선박 | 401 | 0.6 | 343 | -14.5 |
| 무선통신기기 | 326 | 10.2 | 297 | -9.0 |
| 철강제품 | 302 | -15.0 | 285 | -5.5 |
| 석유제품 | 320 | -37.0 | 264 | -17.5 |
| 평판디스플레이 | 297 | -8.3 | 251 | -15.5 |
| 자동차부품 | 256 | -4.1 | 256 | -4.6 |
| 섬유류 | 143 | -10.2 | 138 | -4.7 |
| 가전 | 125 | -15.9 | 113 | -11.6 |
| 컴퓨터 | 78 | 0.4 | 84 | 8.6 |

자료: 한국무역협회

2.8% 증가로 전환됐다. 이에, 본고는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어 2016년 수출입을 평가하고 2017년을 전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2016년 우리나라 전체 및 석유화학 산업의 수출입 동향을 평가하고, 3절에서는 2017년 무역·통상환경을 전망하고 4절에서는 이에 기반해 2017년 석유화학 수출 전망, 5절에서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2. 2016년 수출입 동향 평가

### 가. 2016년 수출입 동향 평가(전체 산업)

세계경제 저성장 지속에 따라 2016년 우리 수출은 지난해 8.0% 감소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다. 우리 수출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1957~1958년 이후 처음이다. 수출과 수입이 모두 부진하여 2016년에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에 실패했다. 세계무역 둔화와 함께 우리 주력 수출산업의 구조적 한계와 경쟁심화로 우리 수출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산업이 갖고 있는 경기 민감성, 해외생산 확대 등 구조적 요인과 중국 등 신흥국과의 기술격차가 축소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출이 더욱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수출상위 품목 중 석유화학, 조선, 철강, 반도체 등 경기변동에 민감한 품목들의 수출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높다. 또한 국내 기업환경의 악화로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가전 등 주요 품목에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생산 확대된 것도 통관기준 수출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결과 2016년 중 우리나라 수출 감소폭(-5.9%)이 세계 평균 수준(-2.6%)을 상회하면서 세계시장 점

〈표 4〉 세계 수출 Top 10의 순위(2015~2016)

(단위: 억 달러)

| 순위 | 2015 | | | | 2016 | | | |
|---|---|---|---|---|---|---|---|---|
| | 수출 | | 무역 | | 수출 | | 무역 | |
| | 국가 | 금액 | 국가 | 금액 | 국가 | 금액 | 국가 | 금액 |
| 1 | 중국 | 22,735 | 중국 | 39,530 | 중국 | 20,982 | 미국 | 37,060 |
| 2 | 미국 | 15,026 | 미국 | 38,179 | 미국 | 14,546 | 중국 | 36,856 |
| 3 | 독일 | 13,262 | 독일 | 23,773 | 독일 | 13,396 | 독일 | 23,941 |
| 4 | 일본 | 6,248 | 일본 | 12,728 | 일본 | 6,449 | 일본 | 12,517 |
| 5 | 네덜란드 | 5,696 | 영국 | 10,859 | 네덜란드 | 5,692 | 프랑스 | 10,736 |
| 6 | 한국(6) | 5,268 | 네덜란드 | 10,825 | 홍콩 | 5,167 | 네덜란드 | 10,723 |
| 7 | 홍콩 | 5,106 | 프랑스 | 10,787 | 프랑스 | 5,009 | 홍콩 | 10,641 |
| 8 | 프랑스 | 5,055 | 홍콩 | 10,700 | 한국(8) | 4,954 | 영국 | 10,449 |
| 9 | 영국 | 4,596 | 한국(9) | 9,633 | 이탈리아 | 4,614 | 한국(9) | 9,016 |
| 10 | 이탈리아 | 4,570 | 이탈리아 | 8,679 | 영국 | 4,089 | 이탈리아 | 8,657 |

자료: WTO

〈표 5〉 세계 수출 Top 10의 수출입 증가율(2016)

(단위: %)

| 순위 | 국가 | 2016 | | | | | |
|---|---|---|---|---|---|---|---|
| | | 수출 | | | 수입 | | |
| | | 上 | 下 | 1-12 | 上 | 下 | 1-12 |
| 1 | 중국 | -9.6 | -6.1 | -7.7 | -10.4 | -0.9 | -5.5 |
| 2 | 미국 | -6.4 | 0.1 | -3.2 | -5.2 | -0.3 | -2.8 |
| 3 | 독일 | 1.6 | 0.4 | 1.0 | 0.3 | 0.4 | 0.3 |
| 4 | 일본 | -1.6 | 8.1 | 3.2 | -11.1 | -1.5 | -6.3 |
| 5 | 네덜란드 | -2.9 | 2.8 | -0.1 | -4.5 | 0.7 | -1.9 |
| 6 | 홍콩 | -0.7 | 2.9 | 1.2 | -7.1 | 2.4 | -2.2 |
| 7 | 프랑스 | -0.7 | -1.1 | -0.9 | -0.2 | 0.0 | -0.1 |
| 8 | 한국 | -10.2 | -1.6 | -5.9 | -13.1 | -0.5 | -6.9 |
| 9 | 이탈리아 | 0.5 | 1.4 | 1.0 | -3.2 | 0.1 | -1.6 |
| 10 | 영국 | -10.6 | -11.5 | -11.0 | 2.0 | 1.1 | 1.6 |

자료: WTO

유율이 2015년 3.2%에서 2016년에는 3.0%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 수출순위도 2015년 세계 6위에서 2016년에는 홍콩과 프랑스에 이은 8위로 떨어졌다.

세계 수출 Top 10 중에서도 한국의 감소율이 두드러졌다. Top 10 가운데 한국의 연간 수출 감소폭(-5.9%)은 영국(-11.0%), 중국(-7.7%)에 이어 3번째로 컸다. 반면 나머지 7개국 중 일본 및 독일, 이탈리아, 홍콩 수출은 증가세로 반전했다.

우리 수출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하락하고 대미 수출비중은 확대됐다. 중국이 가공무역의 제한과 동시에 소재부품 산업육성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중간재 자급률이 제고되고 있어 2015년 26.0%까지 상승했던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2016년 25.1%로 하락한 반면, 한·미 FTA 효과, 한국제품의 브랜드가치 상승 등으로 대미 수출비중은 2014년 12.3%에서 2016년 13.4%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또한 한류 브랜드가 가미된 유망 소비재 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며 호조세를 보였다. 뷰티제품·목욕용품·의약품의 선전이 두드러졌으며 모든 유망 소비재 품목군에서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중소·중견기업으로 수출저변이 확대되는 성과도 있었다. 대기업 위주의 수출 집중에서 벗어나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비중이 최근 4년간 확대되었다.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은 2012년 32.1%에서 2016년 37.5%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기술력 중심의 벤처기업의 수출도 2016년 기준 전년 동기대비 5.5% 증가한 181억 달러로 3년 연속 수출 규모가 증가했다. 디지털거래가 확대되고 맞춤형 소비가 부상하면서 기업의 민첩성이 강조되고 있는 세계무역 트렌드는 중소기업의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우리 무역구조의 고부가가치화도 진전됐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 구성이 다변화되고 수요자 니즈변화 및 기술발전 등에 따라 고부가가치 제품중심으로 변모했다. 가전은 브라운관 TV에서 UHD TV로, 디스플레이도 LCD에서 OLED로, 자동차는 내연기관 위주에서 전기자동차 수출이 증가하면서 주력품목 내에서도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의 다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수출방식 면에서도 전자상거래 수출이 두 자리 수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B2C 등 온라인 비즈니스가 새로운 수출 마케팅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표 6〉 주력산업 내 주요 수출품목 변동 사례

| 주력품목 | 품목내 수출포트폴리오 변화 양상 |
|---|---|
| 자동차 | • 내연기관 자동차 수출 중심 구조 → 전기자동차 수출 급증<br>* 전기자동차 수출증가율 : (2015) 147.2% → (2016.1~10월) 13.8% |
| 자동차부품 | • 자동차가 스마트카로 변화하는 과정 속에 전기차용 배터리 등 전기장치가 급증<br>* 리튬배터리 수출증가율 : (2015) -4.9% → (2016.1~10월) 16.9% |
| 석유화학 | • (기존) 저부가 범용제품 수출 중심 구조<br>• (변화) 고흡수성 수지, 고순도이소프탈산, 이온교환수지 등 고부가 제품 수출 확대 |
| 평판디스플레이 | • LCD 위주의 수출 → 스마트와치 액정 및 OLED 수출 증가<br>* OLED 수출증가율 : (2015) 25.0% → (2016.1~10월) 16.9% |
| 섬유 | • 수출 1위 품목 : 2000년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섬유 → 2016년 스판덱스 |
| 가전 | • 수출 1위 품목 : 2000년 전자레인지 및 브라운관 TV → 2016년 LCD, UHD TV 부품 |
| 컴퓨터 | • 수출 1위 품목 : 2000년 CPU 등 컴퓨터 부분품 → 2016년 SSD로 변화 |

자료: 연구자 작성

## 나. 2016년 석유화학 산업 수출입 동향 평가

2016년 석유화학 수출은 전년대비 4.3% 감소한 362억 달러를 기록했다. 2014년 0.3% 감소하기 시작하여 3년 연속 수출이 감소세를 보였다. 2016년 상반기에는 설비 신증설에 따른 수출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락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으로 전년 동기대비 11.0% 감소한 173억 달러 기록했다. 수출액 감소는 국제 유가급락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 및 전년 대비 정기보수 증가에 따른 수출여력 감소, 합섬원료와 합성고무의 역내 공급 과잉에 따른 수출 경쟁 심화가 대중국 수출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석유화학 제품 톤 당 수출단가가 지난해 상반기에 1,014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3.0% 하락했다. 정기보수로 인한 손실 물량도 2015년 상반기 1,079천톤에서 2016년 상반기에 1,098천톤으로 1.8% 늘어났다. 다만, 합성수지, PX 등은 상반기 수출 물량이 전년 동기대비 각각 3.5%, 16.9% 확대되어 수출 감소폭이 완화되었다.

하반기에는 유가가 반등하면서 수출단가가 상승 전환되고, 수출 물량이 소폭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보다 2.8% 증가한 189억 달러를 기록했다. 2014년 9월부터 하락하였던 유가가 2016년 1월 최저점(26.90$/bbl)을 기록하고 반등하여 석유화학 제품 단가가 동반 상승하였고, 정기보수로 인한 물량 손실도 감소해 하반

〈표 7〉 2016년 상반기 석유화학 대중국 수출 실적

(단위: 백만 달러, 전년동기비, %)

| 구분 | 2015년 상반기 | 2016년 상반기 | 증가율 |
|---|---|---|---|
| 합섬원료 | 440 | 263 | -40.3% |
| 합성고무 | 284 | 210 | -26.1% |
| 석유화학 전체 | 8,809 | 7,789 | -11.6% |

자료: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2015.8.21, 사이버지점

기 수출액 증가에 기여했다.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석유화학 수출단가 상승 및 신증설 설비 가동에 따른 생산능력 확대로 '14.10월 이후 27개월만에 4개월 연속('16.10~'17.1) 증가했으며, 2017년 1월에는 2014년 12월 이후 최대 수출실적인 35.3억 달러를 달성했다. 2016년 하반기 이후 석유화학의 수출 증가율은 9월 -0.3%에서 10월 0.1%, 11월 20.0%, 12월 8.4%, 2017년 1월 34.9%로 회복세를 나타냈다.

〈표 8〉 2016년 석유화학 수출입 실적

(단위: 억 달러, 전년동기비, %)

| 구분 | 2014 | 2015 | 2016 |
|---|---|---|---|
| 수출(증가율) | 482 (-0.3) | 378 (-21.6) | 362 (-4.3) |
| 수입(증가율) | 164 (-3.3) | 133 (-18.9) | 119 (-10.8) |
| 무역수지 | 317 | 245 | 242 |

자료: 한국무역협회

## 3. 2017년 무역 · 통상환경 전망

### 가. 세계경제

2017년 세계경제는 미국 금리인상 및 브렉시트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보호무역주의 확산 조짐 등이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며 3% 초중반대의 저성장세를 크게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선진국 경제는 1.9% 성장으로 2016년(1.6%)보다 소폭 성장세가 회복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고용지표 개선, 민간소비 증가 등 내수 중심의 호조가 기대되나, 미 신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가가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유로존은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로 소비 및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독일(1.5%), 프랑스(1.3%), 이탈리아(0.7%) 등 주요국의 경기 회복이 미미할 전망이다. 일본은 추가 양적완화와 재정지출 확대로 소비 및 투자가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나 엔화 강세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신흥국 경제는 인도, 아세안, 중남미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예상된다. 특히 아시아 신흥국의 성장 지속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남미 국가들의 완만한 경기 회복과 더불어 신흥국 수입물량 확대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중국은 구조조정

〈표 9〉 세계경제 성장 전망

(단위: 전년대비, %)

| 기관 | | IMF | | |
|---|---|---|---|---|
| 연도 | | 2015 | 2016p | 2017p |
| 세 계 | | 3.2 | 3.1 | 3.4 |
| 선진국 | | 2.1 | 1.6 | 1.9 |
| | 미 국 | 2.6 | 1.6 | 2.3 |
| | 유로지역 | 2.0 | 1.7 | 1.6 |
| | - 독일 | 1.5 | 1.7 | 1.5 |
| | - 프랑스 | 1.3 | 1.3 | 1.3 |
| | - 이탈리아 | 0.7 | 0.9 | 0.7 |
| | 일본 | 1.2 | 0.9 | 0.8 |
| 신흥국 | | 4.1 | 4.1 | 4.5 |
| | 중 국 | 6.9 | 6.7 | 6.5 |
| | 인 도 | 7.6 | 6.6 | 7.2 |
| | 브라질 | -3.8 | -3.5 | 0.2 |
| | 러시아 | -3.7 | -0.6 | 1.1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7.1)

정책을 계속 강화할 것으로 보여 6%대 중반으로 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하며 美 금리인상, EU · 일본의 완화적 통화정책 등 주요국 통화정책의 디커플링은 신흥국을 비롯한 세계경기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나. 환율

2017년 美 달러화는 미국 경기 회복세에 따른 Fed 금리인상, 美 대선 트럼프 당선 및 브렉시트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주요국 통화 대비 강세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고용시장 호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2016년 12월에 美 연준은 금리를 인상하였고 2017년에도 2~3차례의 금리인상이 예상된다. 또한 英-EU 간 브렉시트 협상 및 트럼프 신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미 달러 강세 속에서 엔화 · 유로화 · 위안화는 달러 대비 약세가 예상된다. 엔화는 디플레이션 우려 지속에 따른 일본 중앙은행의 추가적인 통화완화 정책 기대감 상승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유로화는 유럽 국가들의 경기 회복세가 미미하고 브렉시트 진행 경과에 따른 EU 결속력 약화 우려 등이 유로화 약세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위안화는 중국 경제성장 둔화, 미국 신정부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우려, 美 금리인상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 등으로 위안화는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원/달러 환율은 평균 1,200원 내외로 금년

〈표 10〉 2017년 원/달러 환율 결정의 주요 변수

| 상승 요인(원화 약세) | 하락 요인(원화 강세) |
|---|---|
| ▶ 美 금리인상 가능성<br>▶ 유로지역 리스크로 인한 안전자산선호<br>▶ 중국 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 부진 | ▶ 美 신정부의 원화 절상 압박 가능성<br>▶ 경상수지 흑자 기조 지속 |

자료: 한국무역협회

대비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미국 금리인상, 유로지역 리스크로 안전자산 선호, 대중국 수출부진이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신정부의 원화 절상 압박 가능성, 경상수지 흑자 기조는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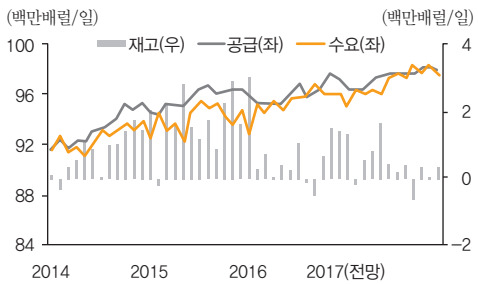
## 다. 국제 원자재

2017년 국제유가는 공급우위 시장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원유 수요가 소폭 회복되어 배럴당 50달러 수준에서 균형점을 형성할 전망이다. 원유 수요는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인도 · 인도네시아 · 태국 ·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증가가 예상되며, 원유 공급은 OPEC 회원국 간 감축 합의에 따라 가격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였으나 감축량의 일정 부분을 셰일 업체들이 시차를 두고서 커버할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OPEC 회원국들의 생산량 감축 움직임은 2017년에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美 셰일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6~9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유 공급을 재개할 것으로 보여 국제유가가 높은 상승세를 보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달러로 결제되는 원유의 특성으로 인해 美 Fed의 금리인상은 국제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금리인상으로 인해 증가한 셰일 업체들의 자본조달 비용은 원유 공급을 감소시켜 국제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 라. 통상환경

한국은 52개국과 15건의 FTA를 발효 중이며, 2016

[그림 5] 세계 원유수급 전망




자료: WTO

〈표 11〉 유종별 가격 전망

(단위: $/bbl)

| 유종 | 2015 | 2016 | 2017p |
|---|---|---|---|
| WTI | 48.67 | 43.33 | 49.91 |
| Brent | 52.32 | 43.74 | 50.91 |
| Dubai | 50.96 | 41.44 | 49.00 |

자료: EIA(2016.11), CERA(2016.10)

년 신규 타결된 중미 6개국(SIECA)과의 FTA가 2017년 발효시 58개국과 16건의 FTA 발효하게 된다. 한·중·일 FTA, RCEP 등 메가 FTA 논의는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며 에콰도르, 이스라엘과의 FTA도 2017년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2017년에는 상품 양허가 제한되어 있거나 개방 수준이 낮은 기체결 FTA를 중심으로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체결된지 오랜 시일이 지난 협정을 중심으로 개정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인도, 아세안과의 추가 자유화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가자유화 협상이 우리 무역업계의 FTA 활용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상품 개방수준을 높이고 원산지규정 개선을 위한 전략적 협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표 12〉 2017년 FTA 추진 전망

| 발효(16건, 58개국) | | 협상중 | | 검토중 | |
|---|---|---|---|---|---|
| 旣발효 (15건, 52개국) | 신규발효 (1건, 6개국) | 신규 | 개선 | 협상재개 여건조성 | 여건검토·공동연구 |
| 칠레, 싱가포르, EFTA(4), ASEAN(10), 인도, EU(28),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 중미 (SIECA, 6) | 한중일, RCEP(16), 에콰도르, 이스라엘 | 아세안, 인도 | 멕시코, 일본, GCC, 인도네시아 | TPP, 말레이시아, MERCOSUR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WTO 주요 협상 가운데서는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이 타결되고 환경상품협정(EGA)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2017년부터 발효를 위한 국내비준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ITA 확대 협상은 2015년 12월 제10차 WTO 각료회의에서 최종 타결되었으며 발효시 참여국은 201개 품목(HS 6단위 기준)에 대해 WTO 회원국 모두에게 관세 철폐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한편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 당선으로 미국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신행정부의 정책동향과 선거 공약의 실행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세계 저성장 속에서 각국이 자국산업 위주의 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미국이 NAFTA 재협상, 중국·멕시코에 대한 관세장벽 강화 정책을 추진할 경우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미국의 수입규제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우리 기업들은 사전 제소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미국은 향후 공정(fair)무역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중국을 주요 타겟으로 하는 수입규제조치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같은 조치는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정책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TPP, NAFTA에 비해 한미 FTA 개정협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한미 FTA 이행과 관련된 통상마찰이 확대될 소지가 있다. 향후 미국이 ICT, 디지털 무역 등 새로운 산업분야에서 통상규범을 주도하기 위해 양자간 통상이슈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대응 논리를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 4. 2017년 수출입 전망

### 가. 전체 수출입 전망

2017년 수출은 전년대비 3.9% 증가한 5,165억 달러, 수입은 전년대비 7.3% 증가한 4,335억 달러로 830억 달러 규모의 무역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수출은 미국 등 선진국과 주요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수요 회복과 유가상승에 따른 단가 인상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은 국내경기의 완만한 성장세와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라 증가할 전망이다. 무역수지는 수출 대비 수입 증가세 확대로 2016년 대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전반적인 흑자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규모는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에도 불구하고 1조 달러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표 13〉 2017년 수출입 전망

(단위: 억 달러, 전년동기비, %)

| 구분 | 2015 | 2016 | 2017(전망) |
|---|---|---|---|
| 수출(증가율) | 5,268 (-8.0) | 4,954 (-5.9) | 5,165 (3.9) |
| 수입(증가율) | 4,365(-16.9) | 4,062 (-6.9) | 4,335 (7.3) |
| 무역수지 | 903 | 892 | 830 |
| 무역규모 | 9,633 | 9,016 | 9,500 |

자료: 국제무역연구원 전망

품목별로는 반도체(전년대비 3.3% 증가)와 디스플레이(5.4%), 무선통신기기(1.8%) 등 IT제품과 원유 관련제품(석유화학 11.9%, 석유제품 6.9%), 일반기계(2.6%) 등의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나 자동차부품(중국 수요감소), 선박(수주잔량 급감)은 2016년에 이어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석유화학은 유가 반등으로 단가 상승, 신증설 설비 가동으로 수출물량 증가가 기대되며,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의 OLED 채용 확대, LCD 단가상승 및 TV의 대형화로 5% 이상의 증가세가 예상된다. 석유제품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 중국의 석유제품 환경기준 강화로 한국산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반도체는 PC 및 스마트폰 성장 정체에도 불구, 메모리 탑재용량 증가로 수급 개선 및 메모리 가격 안정세가 기대되며, 일반기계는 유가상승에 따른 미국 에너지산업 회복, 신흥국 SOC · 설비투자 확대가 수출호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무선통신기기는 전략폰(AI 탑재) 출시, 해외생산거점向 부품 수출 증가가 기대되나, 애플, 중국 업체와의 경쟁심화가 우려된다. 철강제품은 원재료(철광석, 원료탄 등) 가격 상승으로 수출단가 회복이 예상되나,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불안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다. 자동차부품은 중국의 취득세 인하 정책 종료로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나 현대-기아차 멕시코/중국 공장 본격 가동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나. 석유화학 산업 수출 전망

2017년 석유화학제품 수출은 전년대비 10.3% 증가한 399억 달러가 전망된다. 2017년 수출은 중국의 저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유가 회복에 따른 수출 단가 회복 및 신증설 설비 가동으로 수출 물량이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2017년 유가는 50$/bbl을 상회하여 안정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석유화학제품 가격도 안정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품목별로는 석유화학제품 모두 유가 상승에 힘입어

〈표 14〉 2017년 석유화학 수출입 전망

(단위: 억 달러, 전년동기비, %)

| 구분 | 2015 | 2016 | 2017 |
|---|---|---|---|
| 수출(증가율) | 378 (-21.6) | 362 (-4.3) | 399 (10.3) |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표 15〉 석유화학업계 현장점검 결과

| 분 야 | 세 부 내 역 |
|---|---|
| 수출여건 | • 중국의 자급률 확대와 저가원료 기반의 미국(셰일가스) · 중국(석탄)의 설비신설이 위협요인으로 작용<br>- 경기회복 지연과 세계 최대시장 중국의 성장 둔화로 정체. 특히 중국 자급률 상승에 따른 수입 감소로 중국시장 내 가격경쟁 심화<br>* 중국의 제품별 석유화학 자급률 : PE(56.5%), PP(78.3%), PVC(99.7%), PS(90.0%), ABS(66.0%), TPA(99.6%), EG(31.9%), SBR(73.3%), BR(80.0%) |
| 제품/기술 동향 | • R&D 및 관련 투자 확대를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 및 신시장 개척 추진<br>- 2017년 6월 대한유화 NCC 설비 증설 완료<br>- 2017년 하반기 롯데베르살리스 엘라스토머스 S-SBR/EPDM 신규가동<br>- 2017년 1월 효성 PP 설비 증설 완료<br>- 2018년 S-Oil PO/PP 설비 신규가동 |
| 유가 · 원자재 환율 영향 | • 국제 유가 상승 전망에 따라 수출 상승 예상 |

수출이 증가할 전망이며, 타이트한 수급 및 유가 안정화에 따른 채산성 확보로 합성수지를 중심으로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예정이다. 2017년 2월 두바이 유가는 배럴당 53발러로 작년 2월(29.2달러/배럴)에 비해 81.8% 상승했다. 이에 따라 2월 석유화학 수출단가는 톤 당 1,139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7.8% 상승했다. 수출물량은 2017년 효성 PP 설비 증설, 대한유화 NCC 설비 증설, 롯데베르살리스 엘라스토머스 S-SBR/EPDM 신규가동 등 신증설 설비 가동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별로는 중국 및 글로벌 경기 성장 둔화에도 불구, 단가 회복에 따라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지역에 대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중국의 자급률 확대와 저가원료 기반의 미국(셰일가스) · 중국(석탄)의 설비신설이 석유화학 수출회복에 있어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시장인 중국의 성장 둔화와 중국 자급

〈표 16〉 품목별 수출 전망

(단위: 억 달러, 전년동기비, %)

| 품 목 | 2015년 | | 2016년 | | 2017년(전망) | |
|---|---|---|---|---|---|---|
| 합성수지 | 18,418 | (-15.1) | 17,484 | (-5.1) | 18,626 | (6.5) |
| 합섬원료 | 2,273 | (-34.6) | 1,749 | (-23.1) | 1,871 | (7.0) |
| 합성고무 | 2,237 | (-19.8) | 2,156 | (-3.6) | 2,251 | (4.4) |
| 기타석유화학 | 14,863 | (-26.6) | 14,775 | (-0.6) | 15,140 | (2.5) |
| 총 계 | 37,791 | (-21.6) | 36,164 | (-4.3) | 39,888 | (10.3) |

주: MTI 21 기준, ( )는 증감률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표 17〉 지역별 수출 전망

(단위: 백만 달러, 전년대비, %)

| 지 역 | 2015년(실적) | | 2016년(추정) | | 2017년(전망) | |
|---|---|---|---|---|---|---|
| 중 국 | 17,090 | (-22.5) | 16,735 | (-2.1) | 17,832 | ( 6.6) |
| 아세안 | 3,989 | (-19.2) | 4,091 | ( 2.5) | 4,411 | ( 7.8) |
| 미 국 | 1,897 | (-24.6) | 1,779 | (-6.2) | 2,066 | (16.1) |
| E U | 2,997 | (-4.8) | 3,128 | ( 4.4) | 3,605 | (15.2) |
| 일 본 | 1,288 | (-21.0) | 1,300 | ( 0.9) | 1,469 | (13.0) |
| 총 계 | 37,791 | (-21.6) | 36,164 | (-4.3) | 39,888 | (10.3) |

주: MTI 21 기준, ( )는 증감률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률 상승에 따른 수입 감소로 중국시장 내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불안요인이다.

## 5. 시사점

우리나라 석유화학 수출은 지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7년에는 증가세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과 신흥국의 경기회복 기대, 국제유가 상승, 공급과잉 일부 해소 등 우리 수출에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지만, 美 신정부 경제정책과 브렉시트 협상과 맞물린 보호무역주의 확산, 공급과잉 속에서 중국 등 신흥국과의 경쟁 가속화 등 불안요인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석유화학은 주요 기간산업일 뿐 아니라, 정보통신, 나노, 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발전을 가능케 하는 소재산업으로서 산업에 대한 전문가적 지식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부와 업계 간 소통강화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내적으로는 수입규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산업·통상 인프라 및 비관세장벽 D/B를 구축하고 대외적으로는 G20, APEC 등 다자·양자채널을 활용하여 보호무역 기조 예방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상대국이 제기하는 국내 비즈니스 및 통상 현안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국내제

도를 선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포스트 차이나 시장으로 유력한 인도 및 아세안 시장은 기체결 FTA를 통해 시장이 개방되었으나, 다소 폐쇄적인 상대국의 관세 양허로 FTA 관세혜택 향유가 제한된바 추가적인 협상을 통한 양허 개선이 필수적이다.

앞으로 세계경기 부진, 무역환경 유·불리 등 대외변수에 좌우되지 않고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이 질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출기업의 경쟁력 향상, 수출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ICT와의 접목을 통한 주력산업 제조공정의 스마트화로 생산성, 속도, 유연성을 높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부가가치 단계로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는 고강도·내열성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제품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참고문헌

〈국내 문헌〉

국제무역연구원, "2030 한국무역 미래비전 〈선진화된 구조로 세계경제와 조화되는 한국무역〉," 2016.7

문병기 외, "2016년 수출입 평가 및 2017년 전망," 국제무역연구원, 2016.11

_____, "최근 세계무역 부진 원인과 전망," 국제무역연구원, 2016.10

_____, "세계 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 주력품목의 경쟁력 국제비교," 국제무역연구원, 2016.9

에너지경제연구원, 국제유가 및 시장 동향, 2017.2

_____, 에너지통계월보, 2017.2

한국석유화학협회, 2016 석유화학편람, 2016.5

〈웹사이트〉

국제금융센터 http://www.kcif.or.kr/

중소기업청 http://www.smba.go.kr/

통계청 http://kostat.go.kr/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한국석유화학협회 http://www.kpia.or.kr/

한국수출입은행 http://www.koreaexim.go.kr/

한국은행 http://www.bok.or.kr/

CEIC http://www.ceicdata.com/

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http://www.eia.gov/

IMF http://www.imf.org/

ITU http://www.itu.int/

OECD http://www.oecd.org/

UN Comtrade http://comtrade.un.org/

UNCTAD http://unctad.org/

World Bank http://www.worldbank.org/

WTO http://www.wto.org/